

중편소설의 특성

강 은 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모든 형태와 종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김정일선집》제16권 증보판 342페이지)

중편소설을 새롭고 참신하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중편소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중편소설은 사람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고유한 특성과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중편소설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일정한 시공간적크기를 가진 지속적인 생활의 흐름을 그린다는것이다.

단편소설이 생활의 한 단면을 통하여 주인공의 운명전환의 새로운 성격을 밝혀낸다면 중편소설은 일정한 시공간적크기를 가진 생활의 지속적인 흐름속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그려내어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중편소설 《전사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그 수많은 전투들중에서 바로 박대우중대가 두무령방어임무를 자원적으로 맡아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완수하기까지의 이야기 즉 일정한 시공간적크기를 가지는 생활의 흐름속에서 박대우중대장과 중대전투원들 그리고 강표련대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미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불굴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진실하고 철학성있게 묘사하였다.

시공간적크기를 가지는 생활을 보여주어야 하는 박대우중대전투원들의 영웅적위훈은 생활의 단면을 그리는 단편소설로서는 형상하기 힘든것이다. 이것은 시공간적크기를 가지는 지속적인 생활의 흐름을 펼쳐는것이 단편소설이나 장편소설이 가질수

없는 중편소설의 고유한 특성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중편소설작품이 반영하는 시기는 길다, 짧다는 식의 시간적길이로만 잴수 없는 시공간적크기를 가지고있다.

오늘날 창작실천에서는 일정한 시기를 반영한 중편소설뿐아니라 매우 짧거나 혹은 오랜 시기를 반영한 중편소설들도 창작되고있다.

주인공의 하루생활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중편소설로 엮어내기도 하는가 하면 한 인간의 일생을 보여주거나 수십년간의 이야기를 중편소설로 그려낸 작가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단편소설이 그리는 시간적길이보다 더 짧은 8시간동안에 있는 이야기를 중편소설로 훌륭히 엮어낸 작가도 있다. 이것을 놓고볼 때 중편소설에서 시기를 그린다는것이 곧 소설이 반영하는 시간의 길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장편소설에 반영된 력사적시기보다도 더 오랜 기간을 담은 중편소설도 있다. 이것은 작품에 반영된 시간적길이가 결코 소설의 규모나 형태를 규정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중편소설은 일정한 시공간적크기를 가지는 생활흐름을 그리기때문에 어떤 생활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겠는가 하는것은 중편소설창작의 가장 중요한 첫 공정으로 된다.

그러면 중편소설에 그려지는 일정한 기간은 어떤 기간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중편소설에 그려지는 일정한 기간은 주인공의 생활에서 가장 의의있는 부분이어야 하며 반드시 엄격한 요구에 의하여 선택되여야 하고 주인공성격의 본질적측면이

탐구된 생활이어야 한다. 또한 중편소설다운 문제성과 성격창조, 구성상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생활적기초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의 생활속에서 주인공의 성격발전, 성격발현과정을 충분히 그려내어 중편소설의 매력을 살리고 감화력을 높이는것은 장편소설이나 단편소설이 대신할수 없는 중편소설의 고유한 특성으로 된다.

중편소설에서 반영하는 생활의 폭을 어느 정도로 넓게 잡는가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생활반영의 폭을 어느 정도로 잡는가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어느만한 생활령역안에서 인물관계를 정하고 어느 정도로 전개하는가 하는것이다.

해방후 창작된 중편소설전반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야기나 인물관계가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어 진행되고있으며 이외의 다른 분야에로 이야기가 확대되는것은 거의나 찾아볼수 없다.

장편소설에서는 인물관계나 이야기줄거리가 매우 폭이 넓어 시대를 보여줄수 있도록 각이한 분야에로 이야기를 끌고나간다. 하지만 중편소설에서는 어느 한 분야의 이야기로 고정시키고 그 인물들과의 이야기속에서 주제가 해명되는것이 보편적이다.

실례로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은 제대 군인들인 주인공 오래삼, 전덕훈, 왕병도와 탄광일군인 갱장과 탄전처녀인 장미 등 탄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본을 이루고있다.

농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때에도 시기적으로 농업생산문제 또는 농촌기술문제와 농촌혁명화문제, 이렇게 한정된 분야를 벗어나지 않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장편소설이 각이한 분야의 생활을 다종다양하게 반영하는데 비하여 중편소설에서는 거의나 한정된 분야만을 생활

령역으로 정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중편소설은 일정하게 지속되는 생활의 흐름과 일정한 분야의 이야기속에서 단편소설에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중량감이 있는 주제를 해명한다.

결국 일정한 시공간적크기를 가진 생활의 흐름을 보여주는것은 단편소설이나 장편소설이 가질수 없는 중편소설의 특성으로 된다.

중편소설의 특성은 다음으로 중편소설은 장편이나 단편과는 다른 구성상특성을 가진다는것이다.

중편소설이 구성에서 단편소설과 다른 점은 주인공의 운명선이 전개되어있으며 주인공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그릴수 있다는것이다.

단편소설은 어느 한 생활단면에서의 주인공의 성격을 그려내지만 중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운명선이 보다 더 전개되며 또한 주요인물들과의 련관속에서 그 성격이 다면적으로 그려진다.

단편소설은 어느 한 생활단면에서의 주인공의 성격을 해명하는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만 중편소설은 일정하게 지속되는 생활의 흐름과 이야기속에서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 또는 성격발현과정을 풍만하게 그릴수 있다. 여기서 기본역할을 하는것은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작품의 주제를 풀어나가며 작가의 의도를 구현하는 기본인물이다.

주인공이 어떻게 살며 일하는가 하는것을 잘 그려내야 독자들을 소설의 세계에로 이끌어 감화력을 높일수 있는것이다.

단편소설이 주인공의 성격의 한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그리는데 비하여 중편소설은 주인공의 운명선을 그려주는것을 통하여 주인공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려줌으로써 독자들의 가슴속에 주인공의 모습이 깊이 자리잡도록 한다.

주인공의 운명선을 전개하여 그리는것

은 단편소설과 다른 중편소설의 특성으로 된다.

중편소설 《향토》나 《충복》에서는 주인공 오근풍이 걸어온 한생과 거의 27년간에 달하는 춘심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운명선에 초점을 두고 구성조직을 하고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성격적본질이 살아나도록 여러 인물과의 관계속에서 성격을 다면적으로 그려주고있다.

이렇게 주인공의 운명선을 길게 보여주면서도 중편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구성조직을 한것은 작가의 형상수준과 창작기교가 아주 높다는것을 말해준다.

중편소설은 주인공의 운명선을 전개하여 그릴뿐아니라 주인공성격의 여러면을 부각시켜 다면적으로 그린다.

중편소설은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맺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주인공성격의 발전면모와 함께 주인공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그려낸다.

이처럼 주인공의 운명선을 그려주고 그 성격을 주요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다면적으로 그려내는것은 단편소설이 가질수 없는 중편소설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 된다.

중편소설 《향토》에서는 주인공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반사시킬수 있는 세명의 시점인물들의 회상을 합치는것으로 독특한 구성조직을 하여 주인공성격의 여러면을 부각시켜 묘사하고있으며 중편소설 《벗들의 추억》에서는 기자가 취재하는 인물들을 따라가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속에서 영웅의 성격을 여러 측면으로 다양하게 그려내고있다.

그런가하면 중편소설 《한 연구사에 대한 추억》은 결백한 량심을 가지고있으며 진정한 인간성으로 두드러진 류문식연구사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묘사하고있다.

작품은 주체조선의 과학자다운 인생관을 지닌 주인공의 사색과 정신, 정열과 사랑, 량심과 의지 등을 막돌자동부림배의 완성

과정의 사건선을 통하여 폭이 있고 깊이가 있게 형상화하였다. 소설은 주인공성격을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개성화하고있다.

중편소설은 이처럼 단편소설에 비하여 주인공의 운명선을 전개하여 그리며 그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그려내는것을 통하여 감화력을 더욱 높이고있다.

시대가 발전하고 중편소설이 많이 창작되면서 성과작중편소설들가운데는 생활묘사의 폭이나 인간관계의 다양성에 있어서 장편소설과 거의 같으나 시간의 길이만이 짧은 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되고있다.

이런 류형의 중편소설들은 주인공의 성격발전은 적당히 보여주고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주요인물들의 성격적특성을 복잡한 생활속에서 다양하게 그리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중편소설의 특성은 다음으로 발전하는 시대속도에 어울리는 적중한 분량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중편소설은 적중한 분량을 가진 소설로서 그 특성을 잘 살리기만 하면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널리 읽히울수 있다. 중편소설은 손에 쥐기만 하면 끝이 날 때까지 읽을수 있는 적중한 분량으로 독자들을 깊은 여운속에 빠져들게 한다.

해방후 창작된 중편소설들을 종합해보면 거의나 500~700매(긴것은 800매)범위 내에서 창작된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분량으로 창작되면 중편소설의 부피가 지나치게 두터워지는 경향을 막고 단편소설처럼 단순하지 않으면서도 중편맛이 나는 매력적인 생활무대를 펼쳐보일수 있다. 즉 중편은 적중한 분량으로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알려주며 독자들을 소설속에 살게 하고 그들을 주인공의 생의 높이에서로 떠밀어준다.

사실 중편소설이야말로 너무 길지 않으면서도 어떤 때는 아담한 형상을, 어떤 주

인공형상은 격렬하게 또 어떤 형상은 강렬한 극성으로 이어지게 또 과학자형상은 지성미가 폭 배어나게 그려낼수 있는 형상의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므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형태이다.

오늘날 매일 매 시각 발전하는 정보시대는 소설창작에서도 비약적인 속도를 요구하고있다.

중편소설은 장편소설에 비해볼 때 주제의 민감성으로 하여 속도있게 창작될수 있으며 분량이 많지 않지만 그 여운과 감화력이 매우 크므로 소설문학발전에서 응당 중요시되어야 하는 소설형태이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편소설을 활발히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이 널리 읽을수 있는 명작, 사상예술성이 높은 중편소설을 창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우선 중편소설이 독자들을 주인공들과 같이 숨쉬고 일하며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에로 이끌어주는데서 단편소설이나 장편소설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재치있는 단편소설이 아무리 많고 무게있는 장편소설들이 많아도 중편소설이 사람들의 정서교양에 주는 역할을 대신할수 없다.

독자들속에 널리 애독되어 읽히우는 중편소설《전사들》, 《향토》, 《병사의 고향》, 《한 연구사에 대한 추억》, 《들장미》 등은 중편소설이 우리 인민들의 사상교양과 정

서생활에 커다란 몫을 가지고 이바지한다는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한다. 또한 많은 중편소설들이 TV극으로 각색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것은 중편소설이 사람들의 사상정서교양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문학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소설문학을 다양하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편소설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무시할수 없는 역할을 하고있다.

예로부터 소설문학은 단편, 중편, 장편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여왔다.

여기서 중편소설은 소설의 중요한 형태로 발전해오면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였다.

중세 말기나 근대의 신소설을 살펴보아도 중편소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력사에 남은 《홍길동전》, 《심청전》이나 《홍부전》 등은 다 중편소설양식으로 창작된것이다.

중편은 단편과도 다르고 장편과도 다른 구성상특성과 함께 자기의 독특하고 고유한 맛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소설문학화원을 다양하게 하고 인민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서 중편소설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작가들은 중편소설의 특성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중편소설을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